

## K8 하이브리드, 성능·연비 다 잡고 '준대형 정상'

### 그린카 “내년까지 전 차량 ADAS” 이용 고객 사고 방지·이용 편의성 향상 목적



그린카는 사고 방지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2년말까지 전 차량을 순정 ADAS 탑재 차량으로 변경한다. 사진제공 | 그린카

카세어링업체인 그린카가 2022년말까지 운행 중인 전 차량을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 차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1999년 버지니아 공대 교통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의 93%는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약 80%가 사고 전 3초간의 부주의로 인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현재 그린카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약 85%는 제조사 순정 ADAS가 적용된 차량이다. 그린카는 고객들의 사고 방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2022년말까지 전 차량을 제조사의 순정 ADAS를 탑재한 상위 트림 차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ADAS 옵션은 긴급제동보조시스템, 측·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이다.

김경봉 그린카 대표는 “이번 ADAS 전 차량 도입은 그린카 고객들이 사고로부터 더 멀어지고 주행 가능 향상을 통하여 운전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 에스턴마틴, 반포동 전시장 대치동으로 이전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턴마틴의 국내 공식 수입원 에스턴마틴 서울(기흥인터내셔널)이 기존 반포동 전시장을 대치동으로 이전해 신규 오픈(사진)했다. 신규 전시장은 494㎡, 지상 2층 규모로 총 7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에스턴마틴의 비스포크(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공간인 'Q 바이 에스턴마틴존'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에스턴마틴이 최근 개발한 3D 스트리밍 방식의 컨피규레이터를 통해 고도의 커스터마이징 체험이 가능하다. 신규 전시장 오픈 기념으로 에스턴마틴 브랜드 최초의 SUV인 'DBX' 신규 구매시(선착순 30명) 평생 소모품 무상교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 르노삼성자동차, '온라인 스페셜 픽' 캠페인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니시노라)가 26일까지 비대면 마케팅인 '이커머스 온라인 스페셜 픽(Pick)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형 SUV QM6와 중형 세단 SM6 55대 한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서 원하는 차량을 탐색하고 재고수량을 확인한 후 청약금을 지불하면 지정된 영업거점의 담당자와 연결되며, 이후 구입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스페셜 픽' 이벤트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8월 판매조건에 더해 30만 원이 추가 할인된다. 또한 르노캐피탈 할부 이용시 10만 원 상당의 보험패키지(스마트 리퍼어 프로그램, 타이어 보험, 신차 교환 프로그램)를 제공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8, 7월 판매량 준대형 세단 1위 합산 280마력·토크 35.7kgf·m 1.6 터보 엔진·구동모터 효율 극대화 연비 18.0km/L...첨단사양 충실



기아 'K8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효율성을 높인 구동모터를 적용해 역동성과 정속성, 효율성을 모두 개선했다. 18.0km/L라는 뛰어난 복합 연비를 달성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원성열 기자

기아 K8이 현대차 그랜저를 제치고 7월 준대형 세단 판매 1위에 오르며,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기아 K8은 7월 6008대가 판매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그랜저(5247대)를 출시 4개월 만에 넘어섰다. K8은 K7의 후속 모델이다. 차량 명칭의 숫자를 하나 올려 한 등급 위의 신차로 포지셔닝하는 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디자인, 첨단 사양을 대거 적용하는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기아 준대형 세단의 월 판매량이 그랜저를 넘어선 것은 2019년 9월 이후 3년여 만이다.

### ●K8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 주도

K8은 2.5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1.6 터보 하이브리드 등 총 4개 엔진 모델로 운영된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다. 7월 판매된 6008대 중 47%인 2829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K8 하이브리드의 인기 비결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파워트레인을 살펴보자. K8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 Nm의 구동모터,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전 K7 2.4 하이브리드 엔진과 비교하면 최고 출력(159마력)은 13%, 최대 토

크(21.0kgf·m)는 29% 향상됐다.

성능 차이는 곧바로 체감된다.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행 거리를 위해 동력 성능을 희생했다면, K8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진 구동모터의 조합을 통해 성능과 연비를 모두 잡았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23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f·m이며, 제로백은 7초 중반대로 준대형 세단으로는 충분한 수준이다. 저속 영역에서도 막힘이 없고, 중·고속 영역에서 추월을 위해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한층 부드러우면서 빠르게 치고 나간다. 하이브리드 엔진이지만 원활 때는 펀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도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다.

고속 정속 주행시에는 100km 부근에서도 엔진 개입이 없는 EV 모드가 작동

해 효율성을 높여준다. 덕분에 기존 K7 하이브리드(16.2 km/L) 대비 약 11% 높은 공기 복합연비 18.0km/L(17인치 휠 기준)를 달성했다. 실연비는 더 놀랍다. 연비를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왕복 200km의 고속도로+일반 도로를 주행했는데, 트립 컴퓨터에 표시된 연비는 19.2km/L였다.

### ●뛰어난 정속성과 부족함 없는 첨단 사양 준대형 세단의 존재 이유인 부드러운 승차감과 실내 정속성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K8은 서스펜션의 강성을 보장하고 쇼크 업소버 최적화를 통해 승차감과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트렁크 상단부 패키지 언더패드 적용, 도어 접합부 3중 실링 추가, 흡차음재 밀도 향상 등을 통해

진동과 소음을 줄였다. 덕분에 1.6 터보 엔진이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은 플래그십 세단 K9에 필적할 정도로 향상됐다. 첨단 사양도 충실하게 갖췄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O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에르고 모션 시트(옵션 선택) 등을 통해 한층 편안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공영주차장(서울시 기준) 및 전국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납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격은 3698만~4287만 원(개소세 3.5% 및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반영 기준)이다.

sereno@donga.com

##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3주 만에 2000대 사전계약

1회 충전 427km·보조금 50%  
수입 전기차 판매량 추월 예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인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Electrified G80)이 지난 7월 7일 출시 3주 만에 사전계약 2000대를 돌파하며, 국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G80 전동화 모델은 전용 전기차가 아닌 내연 기관 모델 G80의 파생모델이지만, 전용 전기차 수준의 주행 가능 거리(1회 충전

427km)와 성능(시속 0~100km까지 4.9초)으로 주목받고 있다.

뛰어난 승차감과 정속성도 갖췄다. 4개의 센서와 6개의 마이크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면소음을 측정, 분석함과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해 실내 정속성을 높여주는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인 'ANC-R(Active Noise Control-Road)'을 기본 적용했다.

또한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노면정보를 미리 인지해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차량 선회시 제동력과 모터의 구

동력을 이용해 각 바퀴에 토크를 최적 분배하는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eDTV)' 등의 첨단 사양으로 주행성능을 끌어올렸다.

수입 럭셔리 전기차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테슬라 모델 S나 X, 아우디 e트론,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등은 모두 9500만~1억 원을 넘어서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G80 전동화 모델의 가격은 8281만 원으로, 6000만~9000만 원 이하 전기차에 해당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다.

판매량에서도 수입 럭셔리 전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은 뛰어난 동력성능과 전기차 특화 신기술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제네시스

매된 럭셔리 전기차는 포르쉐 타이칸으로 912대가 팔렸다.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되고, 고객 인도가 본격화되면 G80 전동화 모델은 빠르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성열 기자

### 뽕이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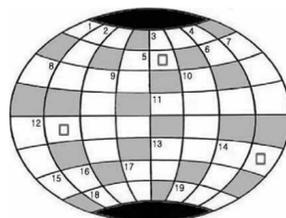
### ■ 스도쿠문제

		5			7			
		7	4		9	5		
9	3			7			8	2
	2			4			7	
		4	7		6	2		
	6			2			4	
3	4			8			5	9
		1	9		3	8		
		8			3			

### ■ 스도쿠정답

4	9	5	1	2	8	6	9	3
6	2	8	5	6	1	7	4	9
8	7	6	9	2	1	5	3	4
1	2	9	6	7	5	8	4	3
9	1	2	9	8	6	2	1	7
2	8	7	1	2	5	9	6	4
1	8	5	6	9	7	4	8	2
9	6	4	2	8	8	9	1	7
1	2	9	8	5	7	2	6	4
6	2	7	4	1	8	9	5	3
9	8	6	9	2	6	7	4	1
2	9	6	1	7	8	5	9	3
6	7	8	2	9	7	1	6	5
2	9	6	1	5	7	4	8	3
8	2	9	7	9	6	1	7	4
9	1	2	6	7	2	9	8	5
7	6	5	1	8	4	9	2	3

### ■ 낱말문제



### ■ 가로열쇠

01.한복 옷의 하나. 03.얼굴을 잔뜩 찌푸린 모양. 05.말이나 노래 따위의 한 도막. 06.아주 즐겁고 시원하여 유쾌함. 08.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명○상○" 11.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위를 돌려 곡식을

쪼거나 뺏는 기구. 12.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삼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 13.광고하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매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선. 15.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17.일할 사람을 구함. 18.쓸데없이 너저분하게 오래 지껄이는 말. 19.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해○'

### ■ 세로열쇠

02.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03.뽕나무의 열매. 04.서로 마음이 통함. 05.말을 부려 마차나 수레를 모는 사람. 07.성격이나 행동이 시원스럽고 쾌활한 남자. 09.한 번 화살에 맞은 새는 구부러진 나무만 보아도 놀란다는 뜻. "○공○조"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어서 연결하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